

쏟아진 할인·보조금...전기차 내수침체 넘기 '큰장' 선다

현대차·기아 최대 500만원 할인
KGM 자체 보조금 75만원 지원
국내 진출 BYD '떼기' 역할 주목
광주시 역대 최대 204억 보조금
지역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 기대

국내의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내수 부진으로 판매량이 주춤한 상황에서 완성차 기업들은 가격 할인에 나섰다. 최근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BYD(비야디)도 2000만원대 모델 출시하면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204억원을 편성하면서 지역 내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이달 자사 전기차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할인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9종(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일렉트릭·포터2 일렉트릭, ST1·아이오닉5N·캐스퍼 일렉트릭·GV60·G80 전동화 모델), 기아 4종(니로 EV·EV6·EV9·봉고 EV)이다.

현대차와 기아 전기 승용차는 기본 차량 가격 할인에 재고 할인,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



기아 'EV6'.



KGM '토레스 EVX'.



BYD '아토3'.

해질 경우 실구매가가 원가보다 최대 1000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상용차는 할인 폭이 더 크다. 봉고 EV는 1900만 원가량이나 저렴해져 2000만원대 중반에 구매가 가능해진다.

KG모빌리티(KGM)는 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EVX에 75만원을 지원해 실구매가를 최저 3900만원대로 맞추고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에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제공한다.

수입차 업계에서도 가격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월 한 달간 전기차인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을 구매하면 국고·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선제적으로 차감에서 빼준다고 밝혔다.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은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원, 209만원을 원가에서 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고객 거주 지역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도 동시에 지급하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딜러사 차원에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다. 업계 따르면 폭스바겐 ID.4, 아우디 e-트론 등은 원가에서 18~28% 할인을 진행 중이다.

iX 등 BMW 전기차는 원가보다 15%가량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이고, 메르세데스-벤츠 EQE도 7%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중국 BYD의 국내 진출도 전기차 시장의 '떼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 BYD 소형 SUV '아토3'는 현재 계약 대수가 1000대를 넘었다.

현대차가 이번 가격 할인과 보조금을 더해 아토3의 경쟁모델인 코나 일렉트릭의 실구매가를 아토3와 비슷한 3000만원 초반대로 낮춘 것도 이런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BYD의 사전 계약 대수가 1000대를 넘은 것은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반전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 할인과 BYD 한국 진출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위해 올해 204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

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중 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이다.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승용차 중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10만원이 줄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각각 2.2%·2.3% 상승

배추 57%·휘발유 9.0% 올라

지난달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0.2%p, 0.4%p 씩 커졌는데,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및 배추, 굴 등 농산물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5.94로 전월(115.14)와 전년 동월(113.47) 대비 각각 0.7%, 2.2% 올랐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8.58로 1년전(115.79)보다 2.4% 상

승했다.

품목별로는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과 휘발유, 경유 등 유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배추가 전년 동월보다 57.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굴(21.4%), 보험서비스료(14.7%), 휘발유(9.0%), 도시가스(6.5%), 경유(5.5%) 등이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32.00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0.8% 하락했다. 신선어류와 신선과실류가 소폭 하락했지만, 신선채소지수는 5.5%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좁혔다.

품목별로 무(78.5%), 당근(72.7%), 양배추(63.8%) 등이 올랐지만, 체리(-41.8%), 바나나(-24.7%), 감(-23.3%), 오징어(-12.4%) 등이

내렸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116.62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전남지역의 생활물가 역시 유가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휘발유(8.1%), 도시가스(6.3%), 경유(4.6%) 등이 올랐다.

전남지역 신선식품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는 다르게 신선어류(2.8%)와 신선채소(5.3%)가 모두 상승했고, 신선과실(-4.0%)은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당근(79.5%), 배추(53.8%), 양배추(41.8%), 갈치(15.0%), 오징어(8.0%) 등이 올랐고, 바나나(-23.2%), 감(-23.4%), 키위(-16.3%) 등은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아이 계좌 만들면 용돈 드려요"

3월까지 '아이Wa'맘 편한 이벤트'

광주은행이 오는 3월 31일까지 '아이Wa'맘 편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할 시 미성년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벤트 기간 중 광주 Wa뱅크에서 '아이Wa'계좌 개설하기'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면 자녀 계좌에 현금 5000원을 지급하고, 계좌와 체크카드 개설 후 해당 체크카드를 1만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이Wa'계좌 개설하기'와 '아이Wa'계좌&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 발급 및 영업점 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증명 서류를 스캔 기술로 활용해 자동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계좌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0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고, 첫 금융 거래를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신보, 전남 주요 거점대와 산학협력 특별보증 업무협약 유망 창업기업 발굴 등 협력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5일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국립목포해양대·전남대 여수캠퍼스·동신대 등 전남도내 주요 거점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 산학협력단 협력업체 특별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산학협력단에서 추천서를 받은 업체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산학협력단 협력업체 추천서에서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남도 소상공



인 육성자금과 연계할 경우 3.0%~3.5%의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은 1~2%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로컬기업을 지원하고 전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상의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연말까지 매월 1회 상담 등 지원

광주상공회의소가 오는 18일까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광주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상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이달 중 채용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매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및 수시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집 기업은 15개사다. 선정 기준은 산재 발생 위험도, 사업 참여 의지, 신청 순으로 결정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를 포함한 서류 작성 지원 등이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융위 "지방 DSR 한시 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위원회는 5일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능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남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9.27 (+27.58)
↑ 코스닥	730.98 (+11.06)
↓ 금리(국고채 3년)	2.578 (-0.006)
↓ 환율(USD)	1446.35 (-16.55) (오후 5시 55분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지난해보다 줄인다

목표치 신한 40%·KB 12% 감축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14조305억원으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14조6천800억원)을 하회한다. 이는 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규모다.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

정된다.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신한은행이 2조 3000억원, KB국민은행은 3조 5000억원, 하나은행은 3조 5000억원, NH농협은행은 3조 1500억원, 우리은행은 2조 800억원이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에 비해서는 신한은행은 40.8%, KB국민은행은 12.7%, 하나은행은 21.8% 각각 적은 반면, NH농협은행은 138%, 우리은행은 33.5% 각각 늘어난 수치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보다 각각 8363억원(27.4%), 1368억원(4.1%), 1조 6886억원

(60.6%) 초과했다.

이들 은행은 처음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작년에 초과한 액수만큼 감액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반면, 지난해 증가액이 목표치를 33.8% 하회한 NH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늘려 잡을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2209억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가 올해 2조800억원으로 정상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대출 규모가 정해져야 최종 확정되겠지만,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한 은행에는 처음 제출한 목표치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하는 페널티를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